

전남

광양 백운산·고흥 팔영산·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크게 늘었다

4월말 현재 전년 동기보다 58%나 증가

편의시설 개선·휴양림별 특화사업 주효

참살이(웰빙) 열풍이 거세지면서 전남지역 자연휴양림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광양 백운산·화순 백아산·화순 한천·해남 가학산·고흥 팔영산·보성 제암산·장흥 유치·화순 안양산·강진 주작산 등 9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중이다.

을들어 4월 말 현재까지 도내 자연 휴양림 이용객은 7만5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079명보다 58%나 증가하는 등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도내 휴양림

에 대한 지속적인 편의시설 개선과 휴양림별 특색사업을 추진해온 것 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락한 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관 숲속에 접 신축 및 리모델링, 팔각정, 황토집, 돌뜰이장 등 부대시설을 보완·확충하는 등 17 개소에 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수기 휴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휴양시설 확충과 함께 이용 고객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지식 전파를 위해 숲해설가 35명, 숲생태관리인 14명 등을 배치 했다.

또한 도내 유치원과 연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에서 숲유치원을 시범운 영중이다. 4월에만 7개 유치원 207명의 유치원생이 숲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11개 유치원이 참여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도내 휴양림이 단순한 휴식기능에 그치지 않고 고품질의 휴양서비스 제공 장이 될 수 있도록 숲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시, 상속자료 이미지 파일 관리

전국 최초 시스템 구축

전국에서 최초로 여수시가 상속(相續) 관련자료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수시는 자체 창안제도로 지난 2월부터 2개월여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협의 요청한 결과 전국 최초로 상속 관련자료 이미지 관리시스템을 구축, 업무에 본격 활용한다고 26 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관련자료를 종이문서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처리 지역·자료정리 등에 불편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료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속한 검색 및 민원응대로 남세권의 제공은 물론 종이문서 생산억제로 인한 ‘녹색(Green)세정’ 구현에 앞장서게 됐다.”며 “점차적으로 지방세 남부관련 모든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등록해 조세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구례 효곡분교 일원 3.2ha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신규사업 대상 확정

2012년 개장 예정

롯해 ▲목공예갤러리 ▲체험공방 ▲세미나실 ▲3D영상관 ▲어린이 놀이 숲 등 목재문화·목재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목재체험학습 공간이 들어선다.

구체적인 사업과 시설은 내년에 있을 설계용역에 따라 결정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전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孝) 장수권역 및 사성암권역 농촌개발사업 등의 잇따른 유치와 더불어 최근 한류 건축붐을 감안, 한국건축 기능인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학교’도 유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

강진 절화수국 20만본 일본 간다

매주 1만본씩 출하

양교(양고)은 지난달 26일 일본의 절화류 유통 전문업체와 절화수국 10만본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11일부터 1주일에 6000 본씩 일본으로 본격 출하하고 있다.

강진산 절화수국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일본으로 첫 출하된 6000 본의 강진산 절화수국이 일본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앞으로 매주 1만본씩 출하될 예정이다.

강진 그리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양교)은 지난달 26일 일본의 절화류 유통 전문업체와 절화수국 10만본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11일부터 1주일에 6000 본씩 일본으로 본격 출하하고 있다.

강진산 절화수국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일본으로 첫 출하된 6000 본의 강진산 절화수국이 일본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앞으로 매주 1만본씩 출하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일자리 찾아 드립니다’

전남도·상의협의회 오늘 여수서 취업박람회

전남도와 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146개 구인업체가 참가하는 ‘2010 전남도 일자리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구인업체들은 이날 취업박람회를

통해 517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2000여명에 달하는 구직자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람회장에는 현대 삼호중공업과

여수산단 기업 12개사의 ‘기업체용 설명관’을 비롯해 ▲23개관 35개 업체의 ‘제공관’ ▲취업클리닉·면접클리닉, 적성검사·취업정보갤러리 등 ‘취업준비관’이 설치된다.

또한 노동부·중소기업청·경営자총협회·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참여하는 ‘고용지원 홍보관’(10개관)과 우수제품 전시관·프랜차이즈관 등 마련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흥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첫삽

2012년 완공·1일 4000ℓ 에탄올 생산

고흥군 간척지에 해조류인 우뭇가사리(홍조류) 등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에탄올’과 일류 플랜트(시험설비)’ 기공식이 26일 고흥군 도당읍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 관련 특허를 보유한 바이오 시스템즈와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전남도·고흥군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파일럿 플랜트에 안정적으로 해조류를 제공하게 될 필리핀의 에리코 오멘타도 보호주 주지사 겸 필리핀 하원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국가과제로 선정된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사업은 바이오 시스템즈가 해

양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1일 4000ℓ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2013년에는 본 공장건설에 들어가 3년간 2000억원을 투입, 1일 40만ℓ의 상용용에탄올을 생산한다.

우뭇가사리 등은 연간 4~6회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생장 속도가 빠르고 비료나 농업용수도 필요하지 않아 환경 친화성이 높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인 해양바이오 산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3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2015년 제품 생산이 상용화되면 2천600억원의 부가가치와 3만명의 고용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곡성 들깻잎 재배 ‘다겹 보온터널’ 이용

10a당 1137만원 고소득

곡성 들깻잎 재배농가들이 ‘다겹 보온터널’을 이용해 에너지절감과 함께 생산량 증가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곡성군 목사동 들깻잎작목반(대표 한우섭)은 지난해 재배 단지 10.3㏊에 ‘다겹 보온터널’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한 결과 기온이 비닐하우스에 비해 6도의 온도가 상승하고 수확횟수도 월 3회에서 4회로 늘어나 생산량이 20% 증가했다.

또 작목반 농가는 생산한 들깻잎을 농협 계통출하해 10a(300평)당 113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기능성 월별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들깻잎은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7~10일 간격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겨울철 보온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부직포에 의한 내부보온 방식으로는 겨울철 혹한 기에 자온 피해가 심하고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새로 개발된 ‘다겹 보온터널’은 캐시미어와 부직포 등으로 제작한 5겹 보온매트를 기존 비닐하우스 내부 천장에 설치, 비닐하우스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강진군은 지난달 26일 일본의 절화수국 20만본 일본 간다

매주 1만본씩 출하

양교(양고)은 지난달 26일 일본의 절화류 유통 전문업체와 절화수국 10만본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11일부터 1주일에 6000 본씩 일본으로 본격 출하하고 있다.

강진산 절화수국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 일본으로 첫 출하된 6000 본의 강진산 절화수국이 일본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앞으로 매주 1만본씩 출하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훤 011-602-2532
(동부면 신봉면, 대인동 소방서간)면

인생열쇠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

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로 성취 못하시

고 알 수 없는 장

애가 생기는 분

현실의 장애를 이

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

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첨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

잔 하시면서 삶

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함●

나대지.

서구 삼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판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폐매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지역.

식당·전원주택.

광산구 산임동 호남대앞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위원회 조망양호.

전원주택·종교시설용도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농장·주말주택.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나주 왕교면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나주 풍랑면 각목리 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관리지역.

영암군 양정면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영암 덕암면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사무.

서구 미륵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87㎡, 연면적(2층) 400.2㎡, 폐매가 11억.

서구 농성동 구 현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폐매가 11억.